

 보건복지부	보 도 참 고 자 료		
배 포 일	2020. 1. 29. / (총 2매)		
중앙사고수습본부 자원관리총괄팀장	정 경 실	전 화	044-202-2420
담 당 자	신 재 귀		044-202-2405

보건복지부-보건의원단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협의체 구성

-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)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1월 29일(수) 오전 7시 30분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보건의원단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.
- 보건의원단체 협의체 제1차 회의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능후 본부장,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6개 보건의원단체장 등 10명이 참석하였다.

<보건의원단체>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,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, 김철수 대한치과 의사협회장, 최혁용 대한한 의사협회장, 김대업 대한약사회장,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

<보건복지부> 보건복지부장관, 건강보험정책국장, 보건의료정책과장, 보험급여과장

- 이 날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상황과 의약계 협조사항을 공유하고, 의료현장의 대응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.

-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우선 호흡기 질환 등으로 내원한 환자의 중국 방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등 환자 신원확인 및 '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(건강보험 자격 확인), ITS(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), DUR(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)' 세 개 시스템*이 의료기관 등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, 자체 감염예방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약단체의 협조를 요청하였다.

* ▲접수단계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, ▲접수·문진단계 ITS, ▲처방단계 DUR

-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6개 보건의약단체는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.

-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능후 본부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자 진료에 애쓰고 계신 의료인·약사 등 의약계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,
 - “최단시간에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으로 감염병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보건의약단체가 힘을 합쳐 나가겠다.”고 전했다.
 - 아울러 “정부대응에 부족한 점이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즉각 개선해 나가겠다.”고 밝혔다.

- 보건의약단체장들은 방호복 등 의료인 보호장비와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한 진단키트 보급 필요성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하면서, 의료인들이 감염병 예방과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.

- 보건복지부와 6개 보건의약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을 위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매주 정례 실무협의체를 개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.